

양현종 '미스터 제로'

넥센전 노히트노런 이어 SK전 5이닝 무실점 KIA, 8-6으로 SK 꺾고 챔피언스필드 첫 승



시범경기

KIA 차기 에이스 양현종의 0의 행진이 계속됐다. KIA 양현종이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5이닝 1피안타 1볼넷 5탈삼진의 호투를 선보였다. 앞선 넥센과의 경기에서 4이닝 노히트노런 경기를 펼쳤던 양현종의 평균자책점은 0을 지켰다. KIA는 8-6, 제역전승을 거두며 홈에서의 첫 승을 신고했다.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는 양현종의 이야기와 달리 흡입을 데 없이 깔끔한 피칭이었다. 밸런스와 직구 위력이 좋지 못했다고는 했지만 최고 스피드는 148km를 찍었다. 차일목의 리드에 따라 변화구를 결정구로 사용하면서 경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었다.

첫 등판 후 ‘초구 스트라이크와 투구수 줄이기’를 풀어야 할 과제에 맞선 양현종에

게는 절반의 만족이었다. 양현종은 “결과는 좋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전 게임보다는 좋지 못했다. 직구 컨트롤이 떨어지면서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범타를 유도했다”며 “(투구수는) 한번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던질 것이다. 작년보다는 볼 개수가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현종은 슬라이더(135km·16개), 커브(120km·5개), 체인지업(127km·9개)을 가지고 직구 컨트롤 난조 문제를 풀었다. 너무 페이스가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이상 없음’.

양현종은 “오히려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다. 오늘 공을 던지면서 볼 구위나 밸런스 등을 보면서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다. 페이스는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개막까지 2주 정도 낫았으니까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IA 타선은 8개의 안타와 볼넷으로 8점을 만들어냈다.

3회 1사 만루에서 4번 타자 나지완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가져온 KIA는 4회 1사 2루에서 나온 9번 강한울의 적시타와 톨타자 이대형의 1타점 2루타로 3-0까지 점수를 벌렸다. 7회에는 이범호가 SK 박민호를 상대로 125m 짜리 중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8회 볼펜의 짧은 피 한승혁·박준표의 난조가 아쉬웠다.

볼넷으로 8회를 시작한 한승혁이 김강민·김재현에게 안타를 내주며 1실점을 했다. 구원 등판한 박준표가 SK의 외국인 타자 스캇에게 홈런포를 얻어맞으며 승부는 4-4 원점으로 돌아갔다.

계투진의 난조가 있기는 했지만 KIA는 8회 2사 1루에서 차일목·강한울·박준태의 연속 볼넷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대타 안치홍의 싸움기 3루타까지 터지면서 8-4가 됐다.

9회초 마무리 여신시호가 몸에 맞는 볼에 이어 두 개의 안타로 2점을 내주는 했지만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는 8-6, KIA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에이스 '째' KIA 양현종이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역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이대형

'봄날'의 이대형

7경기 타율 0.389... 톨타자 '합격' 모교 광주일고에 천만원·배트 기부

고향에 돌아온 '슈퍼 소녀' 이대형에게는 따뜻한 봄이다. 추운 겨울을 보낸 KIA 이대형이 그라운드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시범경기 성적도 좋고, 모교인 광주일고에 톨큰 기부도 하면서 고향에서 마음 따뜻한 봄을 나고 있다.

이대형은 지난해 11월 FA 계약을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신입생 아닌 신입생이다. 영입을 두고 말도 많았고, 낮은 타율에서 적응하고 경쟁을 하느라 힘겨운 겨울을 보냈다.

프로 세계에 몸담은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이대형에게 마침내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시범경기에서 톨타자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대형은 18일 SK전까지 7경기에서 나와 18타수 7안타 타율 0.389, 2도루 8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 이상을 해주고 있다.

18일 경기에서는 첫 타석에서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났지만 3회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에 성공했다. 4회 1사 1루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가볍게 밀어 3루수 키를 넘기는 이대형표 2루타를 만들어 타점도 올렸다.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배 역할도 했다. 이대형은 얼마 전 모교인 광주일고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내놓았다. 후배들에게 방향이를 선물하겠다는 약속도 하는 등 명성에 비해 선배들의 후원이 적은 모교에 큰 힘이 됐다.

이대형은 “광주일고는 프로야구 선수 이대형을 있게 한 곳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후배들이 더 많이 프로무대에서 뛰고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선배로서 뿌듯할 것 같다”며 “시즌 준비 잘해서 그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말·말

148km 찍은 양현종 “어? 많이 나왔네”

▲옆에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장을 둘러보던 선동열 감독, 투수들이 보이지 않자다.

▲(양현종이 나가면 3루로는 티구가 잘 안오니까)=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주형, 수비 부담은 덜할 것 같으며, 양현종이 등판한 5회까지 12개의 타구 중 2개가 3루쪽으로 갔다.

▲어 많이 나왔네=컨디션이 좋지 않아 직구 스피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았던 양현종, 148km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

▲역전의 발판을 놓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8회 2사 1·2루에서 볼넷을 골라냈던 강한울, 시범경기에서는 볼카운트 상관없이 자신있게 스윙을 해도 된다는 김종국 코치의 얘기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완도해조류박람회 & 청산도·보길도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00	용산역/서대문역/천안아산역/익산역출발
	09:3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14:00	보길도 도착 후 관광
2일차	19:20	완도로 이동 후 숙소배정
	09:20	청산도 도착 후 자유관광
	13:00	코스1. 무위사 국악전, 월출산 녹차밭 코스2. 완도해조류박람회(04.11~05.11)
	23:00	완도 출발 후 광주 도착 익산역/서대문역/천안아산역/용산역도착

성인 151,000원~

O-train으로 떠나는 힐링투어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40	광주 집결 후 출발
	11:00	영월 도착 후 트레킹(사강길,셋길)
	14:30	신동 도착 후 관광(1박 2일 할영지)
2일차	16:30	태백역 도착 후 O-train 탑승
	19:00	영주역 도착 후 숙소배정
	08:00	영주부석사, 소수사원, 안동회화마을
	19:00	광주도착 후 휴식

성인 190,000원~

보물섬 남해 기차여행 당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6:1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9:06	순천역 도착 후 남해 이동
	11:00	독일마을/원예예술촌/관산보리밭/한국의 아름다운길
성인 57,000원~	17:35	순천역 출발
	20:19	광주송정역/광주역 도착

KTX와 ITX타고 떠나는 남이섬 자유여행 당일, 매일출발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10:30	광주역 출발/용산역 도착
	11:00~11:55	용산역 출발/가평역 도착
	12:30~18:30	남이섬 도착 후 자유관광
성인 75,000원~	19:28~20:23	가평역 출발/용산역 도착
	20:40~23:56	용산역 출발/광주역도착

KTX타고 떠나는 임진각 제3방굴 DMZ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0:27~11:10	용산역 도착 후 출발/임진각 도착
	11:40	임진각평화누리, 제3방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관광
성인 85,000원~	19:30	용산전차상가이용
	20:40~23:56	용산역 출발/광주역 도착